



자가도축 문제 공론화

- 본회 김회장 축산국장 간담회시 강력 주장, 언론도 관심 -

올해로 끝나는 사슴의 자가도축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본회 김은성회장은 지난 4월13일 축산관련단체장들과 농림부 축산국장의 간담회시 사슴의 자가도축을 현행처럼 유지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회장은 서성배 축산국장에게 도축장을 통한 사슴의 도축시 농가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금년말로 끝나는 사슴의 자가도축 기간을 최소한 5년 이상은 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김회장은 더불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녹용에 대해 식약청과 협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회장의 이러한 발언을 축산신문(4월19일자)에서 그대로 인용, 기사화해 언론에서도 사슴의 자가도축문제가 관심의 대상임을 드러냈다.

농수축산신문 5월 2일자에서는 “사슴 자가도축 계속 허용”이라는 제목을 달아 본회의 주장을 기사화했다.

농수축산신문은 “사슴은 소·돼지와 달라 야생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슴전문 도축장이 필

요하고, 농가들이 필요시 한두마리만 도축하기 때문에 운송과 비용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본회의 주장을 게재하는 한편 사슴의 자가도축이 금지되면 양육농가 경영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가도축 희망 농가는 간단한 도축시설을 설치하면 현행대로 자가도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축산물위생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는 본회의 안을 신문에 반영했다.

한편 본회에서는 지난 4월30일 농림부장관에게 사슴의 자가도축을 현행처럼 유지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안국영팀**



▲ 언론에 소개된 사슴의 자가도축 문제